

# 유아의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정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 Knowledge on Their Autobiographical Memory : With a Focus on the Mediation of Negative Emotionality

성미영\*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Sung, Miyoung

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 knowledge, negative emotionality, and autobiographical memory in a sample of 131 three- to five-year-old children attending day care center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im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emotion knowledge exerted negative effects on their negative emotionality. Second,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autobiographical memory. Finally, the effect of children's emotion knowledge on their autobiographical memory was partially mediated by their negative emotionality. These findings provide a preliminary evidence that children's emotion knowledge and negative emotionality may predict their autobiographical memory.

**Keywords:** autobiographical memory, emotion knowledge, negative emotionality

### I. 서론

유아가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주제로 대화를 하는 상황의 경우 대화 상대방과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과거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자전적 기억을 발달시킨다. 자전적 기억 (autobiographical memory)이란 자신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Nelson

& Fivush, 2004). 개별 유아는 자신의 자전적 기억을 개인적인 과거 사건과 관련지어 인식한다. 과거 사건에 관한 유아와의 대화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고 안내하며, 유아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 과거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된다(Welch-Ross, 1997). 이처럼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능력은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 중 하나이다.

과거 사건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는 나이 어린 유아의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Corresponding Author: Sung, Miyoung

Tel: 02-940-7554, Fax: 02-940-7554

Email: minie@skuniv.ac.kr

경우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 중 대부분의 내용은 부모와 같은 성인에 의해 제공되므로 유아의 자전적 기억은 기본적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아의 자전적 기억 발달은 본질적으로 어머니와의 공유된 기억을 정교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협력적 과정이며, 이는 유아의 회상 능력 발달에 기여한다(Farrant & Reese, 2000). 이러한 이유에서 유아의 과거 회상이나 기억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와 유아의 대화 상황에서 어머니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유아의 과거 회상을 얼마나 잘 유도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어머니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가 과거 사건에 관한 대화를 구성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어머니가 유아와의 대화 상황에서 사용하는 정교화 수준은 유아의 기억발달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vush & Fromhoff, 1988; Lange & Carroll, 2003; Reese, Haden, & Fivush, 1993). 즉, 어머니가 대화 양식을 더 정교하게 사용할수록 유아는 과거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함으로써 유아의 자전적 기억발달에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과거 회상이나 기억발달에서 대화상대방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연구와 더불어 정서의 역할이 유아의 자전적 기억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Christianson & Safer, 1996; McGaugh, 2003; Reisberg & Hertel, 2004), 기억발달을 돕는 정서지식의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론적, 경험적 관심이 제기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정서지식과 자전적 기억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Wang, 2008)는 정서 상황 지식과 같은 정서적 측면이 개인이 경험한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 처리와 해석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전적 기억발달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서지식은 특정 문화권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의 자전적 기억 능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서와 인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서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유아의 정서지식은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 회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관한 연구들은 정서성이 유아

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였다(Rothbart, Ahadi & Hershey, 1994). 또한 부정적 정서성의 경험이 일상적 또래 관계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Fabes, Eigenberg, Jones, Smith, Guthrie, Poulin, Shepard, & Friedman, 1999). 이처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과 더불어 애착이나 정서표현성과 같은 정서 요인이 어머니와 유아의 과거 회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Fivush & Vasudeva, 2002)도 수행되었다. 유아와 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의 경우 유아가 과거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회상하도록 상호작용한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와 유아가 과거를 회상하는데 애착과 같은 정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Fivush & Vasudeva, 2002)는 기질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우울증 환자는 부정적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적으로 걸러냄으로써 긍정적 자극의 회상에 있어서 인지적 취약성을 가진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전적 기억을 회상할 때 특정한 기억의 회상에 어려움을 보였고(Williams & Broadbent, 1986), 자전적 기억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해 과잉 일반화하는 기억 양상을 보였다(Doh & Chey, 2003). 슬픈 음악을 들려주고 가장 슬펐던 사건을 회상하도록 했을 때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정상 성인에 비해 긍정 단어 회상 비율이 더 낮았으나(Kwon, Kwon, Ham, & Back, 2008),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사건에 대한 회상 비율이 더 높았다(Lee & Sohn, 2008). 이를 통해 볼 때 긍정적 사건에 대한 자전적 기억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전적 기억력은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유아의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발달과 관련이 있으며(Wang, Hutt, Kulkofsky, McDermott, & Wei, 2006; Wang, 2008),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자전적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Doh & Chey, 2003; Kwon *et al.*, 2008)을 통해 볼 때,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발생한 사건에 적합한 정서를 판단하는 정서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슬픔, 두려움, 분노의 정서 상태인 부정적 정서성에 부적 영향력을 미침과 동시에 유아의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 능력인 자전적 기억발달에도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다른 유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자전적 기억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정서지식 수준이 높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은 낮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전적 기억력은 높아질 것이다. 유아의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발달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Wang *et al.*, 2006; Wang, 2008)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식과 자전적 기억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매개역할을 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지식과 부정적 정서성, 자전적 기억의 관계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정서지식과 자전적 기억발달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정서지식은 자전적 기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변인 탐색을 위한 전략 즉,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지거나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에 근거하여 먼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서지식이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자전적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력이 부정적 정서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지식은 부정적 정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지식은 자전적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미치는 정서지식의 영향은 부정적 정서성 통제 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식, 부정적 정서성, 그리고 자전적 기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력을 부정적 정서성이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역 소재 어린이집 3곳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총 131명과 담임교사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 중 남자는 62명(47.3%), 여자는 69명(52.7%)이었고, 만 3세는 40명(30.5%), 만 4세는 46명(35.1%), 만 5세는 45명(34.4%)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정서지식

유아의 정서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Hoffner and Badzinski(1989)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Garner, Jones, and Miner(1994)가 사용한 정서 상황 과제(situation task)를 실시하였다. 정서 상황 과제는 발생한 사건과 정서를 일치시키는 유아의 정서 상황 지식을 측정하는 과제로,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의 4가지 기본 정서를 반영하는 상황이 묘사된 그림카드를 각 정서별로 2장씩 총 8장 준비하고, 그림카드에서 주인공의 얼굴 표정은 모두 비워두었다. 조사자는 주인공의 얼굴 표정이 비어 있는 각각의 그림카드를 제시하면서 그림에 묘사된 상황의 내용을 설명해주고(예, "OO는 갖고 싶었던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 받았어."), 설명이 끝난 후 유아에게 그림카드의 주인공이 느끼는 정서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유아의 응답이 정답이면 2점, 긍정 또는 부정의 영역이 일치하면 1점, 응답이 틀린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정서지식의 총점은 0~16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응답에 대한 채점자 간 일치도는 99%였으며, 일치하지 않은 응답의 경우 채점자 간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 2) 부정적 정서성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Rothbart, Ahadi, and Hershey(1994)가 개발한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s: CBQ) 중 부정적 정서

성에 해당하는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은 슬픔, 두려움, 분노의 정서 상태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 슬픔에 해당하는 문항의 예로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면 몹시 실망한다.”, 두려움 문항의 예로 “높은 곳을 무서워 한다.”, 분노 문항의 예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를 들 수 있다. 부정적 정서성의 각 하위영역은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7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답입교사가 부정적 정서성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측정되었고, 부정적 정서성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5로 나타났다.

### 3) 자전적 기억

유아의 자전적 기억은 Fivush and Fromhoff(1988), Welch-Ross(1997)의 범주 구분에 근거하여 자전적 기억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유아가 모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임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공통적인 경험 사건으로 ‘소풍’과 ‘산타잔치’를 선정하였고, 두 가지 경험 사건을 통해 유아의 자전적 기억을 측정하였다. ‘소풍’과 ‘산타잔치’ 경험 사건에 대해 각각 사건(예, 소풍 갔던 기억나니?), 시간(예, 언제 소풍을 갔었니?), 장소(어디로 소풍을 갔었니?), 인물(예, 누구랑 소풍을 갔었니?)의 네 가지 질문을 하였고, 자전적 기억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 유형은 기억반응(1점)과 무반응(0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하였다. 기억반응은 사건, 시간, 장소,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예, 친구들이랑 다른 형님반 언니랑요.)이며, 무반응은 기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예, 잘 생각이 안 나요.)를 의미한다. 자전적 기억 점수는 0점에서 8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전적 기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반응에 대한 채점자 간 일치도는 98%였으며, 일치하지 않은 반응의 경우 채점자 간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그림카드를 이용하여 유아의 정서지식을 측정하였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CBQ의 부정적 정서성 관련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자전적 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개별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지식과 자전적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성 질문지는 답입교사가 작성하도록 배부한 후 1주일 뒤 수거하였다. 부정적 정서성 질문지는 총 131부가 회수되었으며, 정서지식, 자전적 기억의 경우에는 각각 131명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정서지식, 부정적 정서성, 자전적 기억의 사례수는 131명이었고, 131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회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유아의 정서지식, 부정적 정서성과 자전적 기억의 관계

유아의 정서지식, 부정적 정서성과 자전적 기억의 일관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정서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1.11점(2.08점), 부정적 정서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61.78점(18.94점), 자전적 기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5.44점(2.11점)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서지식, 부정적 정서성과 자전적 기억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유아의 정서지식은 부정적 정서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r=-.439, p<.001$ ), 자전적 기억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emotion knowledge, negative emotionality, and autobiographical memory

Emotion knowledge	Negative emotionality	Autobiographical memory
M(SD)	M(SD)	M(SD)
11.11(2.08)	61.78(18.94)	5.44(2.11)

(Table 2) Correlations among autobiographical memory, emotion knowledge, and negative emotionality (N=131)

Variables	Emotion knowledge	Negative emotionality	Autobiographical memory
Emotion knowledge			
Negative emotionality	-.439***		
Autobiographical memory	.577***	-.637***	

\*\*\*  $p < .001$

(Table 3) Simple regression: Effects of emotion knowledge on negative emotionality (N=131)

Independent variable	Negative emotionality			
	<i>b</i>	$\beta$	$R^2$	<i>F</i>
Constant	100.164			
Emotion knowledge	-3.996	-.439***	.193	30.761***

\*\*\*  $p < .001$

(Table 4) Simple regression: Effects of emotion knowledge on autobiographical memory (N=131)

Independent variable	Autobiographical memory			
	<i>b</i>	$\beta$	$R^2$	<i>F</i>
Constant	-1.059			
Emotion knowledge	.585	.577***	.333	64.293***

\*\*\*  $p < .001$

( $r = .577, p < .001$ ).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자전적 기억과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r = -.637, p < .001$ ).

##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정서지식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유아의 정서지식은 부정적 정서성( $\beta = -.439, p < .001$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정서성을 19.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 3.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정서지식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자전적 기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유아의 정서지식은 자전적 기억( $\beta = .248, p < .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전적 기억에 대한 설명력은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전적 기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 4.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과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유아의 정서지식과 부정적 정서성이 자전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정서지식과 부정적 정서성을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자전적 기억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자전적 기억에 대해 정서지식과 부정적 정서성의 공차한계는 0.81, VIF 지수는 1.24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에서 보듯이,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과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은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력을 통제된 2단계 분석에서 감소( $\beta=.577 \rightarrow \beta=.368$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지식을 통제했을 때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476, p<.001$ ). 자전적 기억에 대한 설명력은 정서지식만이 투입된 경우 33.3%에서 부정적 정서성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51.5%로 향상되었다. 이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정서지식과 자전적 기억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먼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정서지식이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력이 부정적 정서성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3~5세 유아 131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정서지식은 부정적 정서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아의 정서지식이 높을수록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정서지식의 설명력은 19.3%로 나타나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발생한 사건에 적합한 정서를 판단하는 능력이 클수록 유아의 슬픔, 두려움, 분노의 정서 상태에 부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아의 정서 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특정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해당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Effects of emotion knowledge, negative emotionality on autobiographical memory (N=131)

Independent variable	Autobiographical memory			
	Step 1		Step 2	
	<i>b</i>	$\beta$	<i>b</i>	$\beta$
Emotion knowledge	.585	.577***	.373	.368***
Negative emotionality			.053	-.476***
R <sup>2</sup>	.333		.515	
F	64.293***		68.052***	

\*\*\*  $p<.001$

상황에 대한 정서적 판단 능력이 높은 유아의 경우 슬프거나 두렵거나 분노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Eisenberg *et al.*, 1993; Kwon & Park, 2003; Lee & Moon, 2008; Sung, 2006a, 2006b, 2006c)은 부정적 정서성이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이나 행동억제, 행동문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을 뿐 부정적 정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정서지식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영역 중 슬픔이나 두려움은 내면화 행동문제와 관련되고, 분노는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Rothbart & Posner, 2006)를 통해 볼 때 후속연구에서는 정서지식과 부정적 정서성의 각 하위영역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식은 자전적 기억에 정적 영향을 미쳐서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전적 기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의 설명력은 33.3%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권에 관계없이 유아의 정서 상황 지식이 자전적 기억 발달을 예측하며(Wang, 2008), 유아의 정서지식이 구체적인 사건 정보에 대한 회상 능력과 관련이 있다(Wang *et al.*, 2006)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자전적 기억 회상에 정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Christianson & Safer, 1996; McGaugh, 2003; Reisberg & Hertel, 2004)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Lee & Sung, 2003)에 의하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작용하는 유아의 정서지식은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서, 유아의 정서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강제적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친사회적 전략 사용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식 수준의 차이가 문제해결 전략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전적 기억이라는 인지적 측면에도 정서지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정서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는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정서 평가적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한다(Wang, 2008). 이처럼 정서지식은 구체적인 개인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중요한 개인적 사건 정보를 해석, 조직,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정서지식은 자전적 사건을 이해하고 이를 평가하고 기억을 촉

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는 독특한 자신만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특정 정서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며, 다양한 정서 유발 상황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서지식을 형성한다(Bennett, Bendersky, & Lewis, 2005). 정서지식이 풍부할수록 중요한 개인 사건을 보다 장기간 기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서지식은 자전적 기억 발달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정서지식과 자전적 기억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대한 정서지식의 영향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Wang *et al.*, 2006; Wang, 2008), 우울과 자전적 기억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들(Doh & Chey, 2003; Kwon, Kwon, Ham, & Back, 2008)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우울증의 인지이론에 의해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우울증 환자는 부정적 자극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적으로 걸러냄으로써 긍정적 자극에 비해 부정적 자극을 더 잘 회상하는 인지적 취약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슬픈 음악을 들려주고 가장 슬펐던 사건을 회상하도록 했을 때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정상 성인에 비해 긍정 단어 회상률이 더 낮았으며(Kwon *et al.*, 2008), 우울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자전적 기억을 회상할 때 특정한 기억의 회상에 어려움이 있거나(Williams & Broadbent, 1986) 자전적 기억에서 부정적 사건에 대해 과잉 일반화하는 기억 양상을 보였다(Doh & Chey, 2003). 이를 통해 볼 때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 과거에 경험한 긍정적 사건에 대한 회상 기억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정서적 경험을 통해 정서지식을 축적하고, 축적된 정서지식은 유아의 자전적 기억을 촉발시키며,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이 이들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소풍, 산타잔치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 경험 사건만을 대상으로 유아의 자전적 기억을 측정하였다. 그런데, 유아가 경험하는 사건에는 긍정적 정서와 더불어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사건, 예를 들어, 병원가기와 같이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사건도 있으므로 유아가 경험한 사건에 포함된 정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와 더불어 자전적 기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류층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자전적 기억발달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자전적 기억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정서사회화 실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자전적 기억발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추적해 보는 중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자전적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관련 요인으로 정서지식과 부정적 정서성을 선정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지식이 자전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확장하여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담당하는 매개적 역할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아의 정서지식, 부정적 정서성과 자전적 기억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유아의 기억발달에서 특히 중요한 자전적 기억에 정서적 측면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고,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이 유아의 자전적 기억발달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자전적 기억, 정서지식, 부정적 정서성

## REFERENCE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nnett, D. S., Bendersky, M., & Lewis, M. (2005). Antecedents of emotion knowledge: Predictor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 *Cognition and Emotion, 19*(3), 375-396.
- Cain, W. J. (2004). Telling stories: Examining the effects of elaborative style, reporting condition, and social class in preschoolers' narratives. *Merrill-Palmer Quarterly, 50*(2), 139-158.
- Christianson, S. A., & Safer, M. A. (1996). Emotional events and emotions in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D. C. Rubin (Ed.), *Remembering our past: Studies in autobiographical memory* (pp. 218 - 243).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eveland, E. S., & Reese, E. (2005). Maternal structure and autonomy support in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contributions to children's autobiographical memory. *Developmental Psychology, 41*(2), 376-388.
- Doh, S. K., & Chey, J. Y. (2003). Overgeneral autobiographical memory in depressed and abused individual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321-341.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Farrant, K., & Reese, E. (2000). Maternal style and children's participation in reminiscing: Stepping stones in children's autobiographical memory development.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2), 193-225.
- Fivush, R. & Fromhoff, F. A. (1988). Style and structure in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Discourse Processes, 11*, 337-355.
- Fivush, R., & Vasudeva, A. (2002). Remembering to relate: Socioemotional correlates of mother-child reminiscing.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3*(1), 73-90.
- Fivush, R., Haden, C. A., & Reese, E. (2006). Elaborating on elaborations: Role of maternal reminiscing style in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7*(6), 1568-1588.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Haden, C. A. (1998). Reminiscing with different children: Relating maternal stylistic consistency and sibling similarity in talk about the past.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99-114.
- Hoffner, C., & Badzinski, D. M. (1989). Children's integration of facial and situational cues to emotion. *Child Development, 60*(2), 411-22.
- Kim, S. Y. (1993). Autobiographical memory: New questions for the study of mem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2*(1), 1-18.
- Kwon, H. I., Kwon, J. H., Ham, B. J., & Back, J. W. (2008). Biased processing of emotional information following from depression. *Program Book of Annual Meeting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82-283*.
- Kwon, Y. H., & Park, K. J. (2003). Effects of emotionality,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maternal behavior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3), 27-44.
- Lange, G., & Carroll, D. E. (2003). Mother-child conversation styles and children's laboratory memory for narrative and nonnarrative material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4*(4), 435-457.
- Lee, J. E., & Sohn, Y. W. (2008). Subjective well-being and memory of valenced life ev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ratio and memory reconstruction of positive event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ility, 11*(3), 397-418.
- Lee, J. H., & Moon, H. J. (2008).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4), 1-14.
- Lee, K. Y., & Sung, M. Y. (2003). Preschoolers' emotional knowledg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y: Comparison of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preschool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1), 33-45.
- McGaugh, J. L. (2003). *Memory and emotion: The making of lasting memorie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Nelson, K. & Fivush, R. (2004). The emergence of autobiographical memory: A social cultural developmental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11*(2), 486-511.
- Park, M. S., & Park, C. H. (2011). Comparison of Korean older and younger adults concerning positivity effect in the recall of emotional pictures.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3*(1), 171-194.
- Reese, E., Haden, C. A., & Fivush, R. (1993). Mother-child participation about the past: Relationship of style and memory over time. *Cognitive Development, 8*, 403-430.
- Reisberg, D., & Hertel, P. (2004). *Memory and emo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othbart, M. K., & Posner, M. I. (2006). Temperament, attention,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Developmental Neuroscience* (pp. 465-501). New York, NY: Wiley.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ar Quarterly, 40*, 21-39.
- Schultz, D., Izard, C. E., Ackerman, B. P., & Youngstrom, E. A. (2001). Emotion knowledge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children: Self-regulatory antecedents and relations to social difficulties and withdraw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53-67.
- Sung, M. Y. (2006a). Children's emotionality and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institutionaliz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1), 17-29.
- Sung, M. Y. (2006b).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 children: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3), 285-300.
- Sung, M. Y. (2006c). The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er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emotionality, emotional knowledge, and event knowledg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5), 59-68.

- Wang, Q., Hutt, R. Kulkofsky, S., McDermott, M., Wei, R. (2006). Emotion situation knowledge and autobiographical memory in Chinese, immigrant Chinese, and European American 3-year-old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7*(1), 95 - 118.
- Wang, Q. (2008). Emotion knowledge and autobiographical memory across the preschool years: A cross-cultural longitudinal investigation. *Cognition, 108*(1), 117-135.
- Welch-Ross, M. K. (1997). Mother-child participation in conversation about the past: Relationships to preschoolers' theory of mind.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618-629.
- Williams, J. M., & Broadbent, K. (1986). Autobiographical memory in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2), 144-149.

접 수 일 : 2012. 06. 05.  
수정완료일 : 2012. 07. 02.  
게재확정일 : 2012. 07. 19.